



내면의 목소리

# 라일락과 바위

작가: CATHERYNNE M. VALENTE

스토리

CATHERYNN M. VALENTE

일러스트

OGNJEN SPORIN

편집

CHLOE FRABONI, ERIC GERON

세계관 자문

COURTNEY CHAVEZ, SEAN COPELAND

창작 자문

STEVE AGUILAR, ELY CANON, STEVE DANUSER,  
CHRIS METZEN,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디자인

COREY PETERSCHMIDT, JESSICA RODRIGUEZ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우리 종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투박하고 냉정한 바위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그란은 언제나 나의 꽃이었다.

아이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지만. 나에게도.

상냥한 영혼이 드워프로 성장하는 데 어떤 대가가 뒤따르는지 상상할 수 있는 이는 몇 없으리라. 아들이 아닌 딸의 영혼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다. 그 한 번의 주사위 굴림이 어머니의 딸은 머리를 처음 움켜쥐기도 전에 내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빈말이 아니다. 태어나기 무섭게 육체는 나의 것을 앗아갔다. 이 몸은 소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모이라 타우릿산. 마그니 브론즈비어드과 그 부인인 에이미어의 딸이며, 아이언포지의 공주이고, 검은무쇠 황제의 미망인이자, 그 후계인 다그란 2세의 어머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길을 걸을 수 있는 나이가 찼을 때부터 분노해 왔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든다. 내가 죽어 사라져도 이 분노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내 몸 위로 흠이 덮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 존재가 잊혀도, 내 썩어버린 시체에서 만들어진 검게 굳어버린 무정한 보석이 이끼를 뚫고 올라올 것 같다. 펄펄 끓는 열기를 내뿜으며 쇠뿔대겠지. 그럼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는 마을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쓸지도 모르겠네.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이 처절한 분노를 연료 삼은 난로는 영원토록 아늑한 온기를 제공할 것이고, 스투는 주린 배를 채워줄 것이다. 재밌는 발상이다.

오랜 세월 이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아왔다. 이 분노는 다들 그렇게 소유권을 두고 싸워대는 방패에 박힌 보석처럼 번뜩거렸다. 마치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처럼,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분노를 낭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분노는 타인을 경계하게 만들고, 두려움이나 반항심을 자극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며, 나아가 광기 어린 소문과 반란의 속삭임을 부추긴다. 지나치게 사용할수록 공포는 흐려지고 분노의 날은 무뎠진다. 그래서 방패의 보석을 내면에 형성하는 법을 익혔다. 분노를 마음이란 이름의 동굴 깊은 곳으로 밀어 넣고, 꼭 눌러 딱딱한 고통의 정동석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모든 건 남편의 백성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 모든 실수는 내면에서 끔찍하게 끓어오르는 일그러진 상흔에서 비롯되었다. 가끔은..... 이 분노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궁금하다.

*아들이 같은 실수를 할까 봐 염려되진 않는다. 오히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지. 무수한 단점이 있긴 해도, 의로운 분노에는 힘이 있다.* 그런데 가엾은 다그란은 제 몸을 지킬 의로울 분노조차 없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린 아들은 그 무엇도 증오나 혐오, 두려움이나 분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호기심과 이해를 향한 갈망으로 바라볼 뿐이다. 즉 자신을 지켜줄 분노가 없단 뜻이다. 다그란에게는 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 오래된 장신구를 놓고 다투는 저 위대하신 관리들은 내가 언제까지고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다그란을 싸고도는 걸 좌시하지 않을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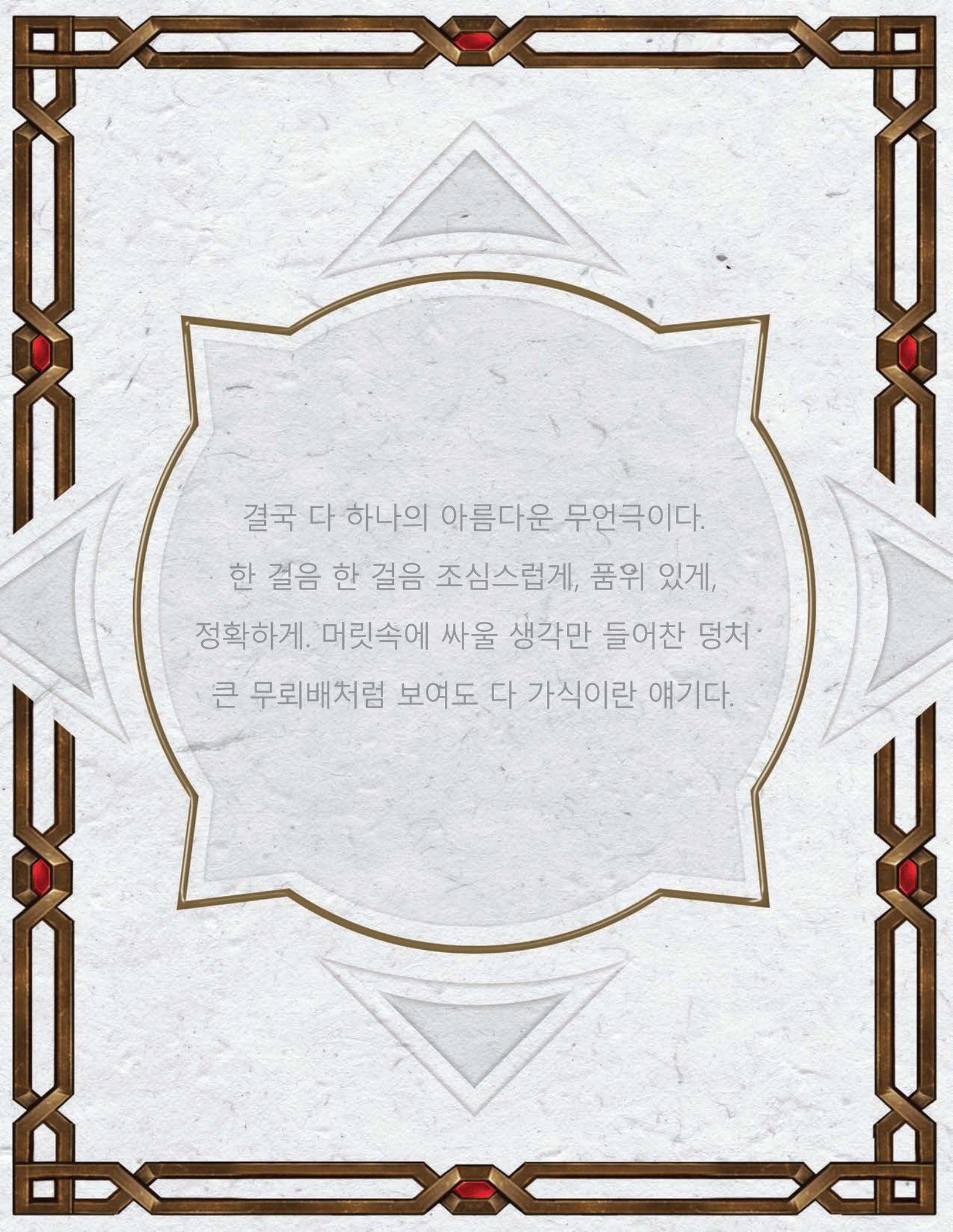
그런데도 우린 저들을 받아들였다. 내 아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어 하는 추한 욕망을 알고 있음에도. 우린 저들을 담금그릇 전당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휴식처로. 어둡고철로 도시에서 쭉 뻗어 나가는 지하 평원에 피리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거대한 동굴 자리한 드넓은 집으로 말이다. 우리는 저들을 환영했고, 저들은 내 아이를 특별할 것 없는 용단 취급하듯이 바라보았다.

담금그릇 전당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하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다그란과 나는 거친 바위로 만들어진 명층과 복도를 거닐었다. 반들반들한 검은 대리석 회랑이 저 아래 용암의 강 위로 늘어서서 두 넓은 건물을 잇고 있었다. 창문은 은으로 틀을 짜맞춘 세모날 형태였고, 난간에는 화염초가 만발했다. 산책 한 번에 족히 수 시간은 걸렸다. 저 멀리 영롱한 종유석과 빛나는 돌이 수 킬로미터는 깔려 있었으니, 몇 시간을 거듭 걸어도 결국 집 안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산책으로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찰나에 불과하다고 한들,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제 요구를 들어달라며 발을 구르고 뺨 소리를 지르는 자들 없이 침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섭정 여왕의 삶에서 그런 존재들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와 같았다. 가끔은 아들이 옛날처럼, 작고 귀엽고 천진난만하던 시절의 그 아이가 까르륵 웃으며 내 앞을 뛰어다니는 광경이 눈앞에 보이기도 한다. 그 웃음소리도 못 들은 지 몇 년이나 되었다. 하지만 그 형상은 내 마음속 푸른 마노 기둥의 그림자로 사라지고, 후회와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황야의 땅에서 탐험가들이 발견한 거대한 방패에 관한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다. 그 망할 물건을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모른다. 진실로 피로 점철된 물건이었다.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금이 가 있었으며, 죽히 수백 년은 묵었다. 전면부는 철과 청동, 금 세 가지 금속을 섬세하게 엮어 넣은 십자가로 사등분이 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그 넓은 면적의 각 면에는 네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세월의 풍파에 흐릿했다.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우선 한 그림에는 검은 들판을 배경으로 검은 진주와 보랏빛 보석이 박힌 화려하고 섬세한 은빛 왕관이 있었고, 거대한 전쟁 망치가 그 사이를 꿰뚫는 형태였다. 자루는 거칠게 깎아낸 수수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하얀 들판에서 독수리와 사자가 등을 맞대고 있으며, 그 아래로 주황색 꽃이 핀 나뭇가지가 있는데, 무력해 보이는 양이 오렌지를 입에 물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 큼지막한 오닉스와 호박석이 박힌 거대한 철제 술잔에 루비 가루를 뿌린 피가 흘러넘치는 그림도 있었다. 마지막 그림은 검은바위로 만든 탑이었는데, 가운데가 갈라져 토파즈와 석류석의 불길에 삼켜진 모양이었다. 특히 불길은 다른 사분면으로 흘러넘치며 모두를 위협하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이 모든 디자인이 일전에 말한 땅은 금속 테두리로 감싸여 있었다. 다만 네 번째 은 매듭에는 고대의 룬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학식 높은 학자들도 못 읽겠다고 학을 뽕 지경이었다. 아예 이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호언장담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나는 술한 증거와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실리적인 얘기든, 열정에서 비롯된 얘기든. 유물을 자세히 살피기도 했다.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냈다. 저 금속과 닳아해진 가죽 덩어리는 내가 신경 쓸 물건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다. 시간이 넘쳐나는 장인들이 오래전에 죽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물건이리라. 그 왕은 아는 건 없어도 사람 머리통 깨버리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는 자였을 것이다. 매우 잘 만든 물건이고, 비싼 물건이라 싸움의 원인도 됐을 거다. 근데 그것뿐이겠지.



결국 다 하나의 아름다운 무언극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싸울 생각만 들어찬 덩치  
큰 무뢰배처럼 보여도 다 가식이란 얘기다.

아, 브론즈비어드를 위한 물건일까? 금속을 그렇게 곱게 땅는 기법은 브론즈비어드 대장장이만의 비전이니까? 아니면 검은무쇠의 것일지도 모르지. 루비와 오팔, 오닉스를 검은무쇠 양식으로 세공해 마감했으니 말이야. 그것도 아니면 와일드해머 쪽일 수도 있겠다. 독수리와 사자가 합쳐지면 그리핀 아닌가? 위대한 가문의 수장들께서 총출동해 논의하라지. 혹시 알아? 소유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질지.

돌덩이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기 위한 드워프의 오랜 투쟁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리라. 우린 틀림없이 이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언젠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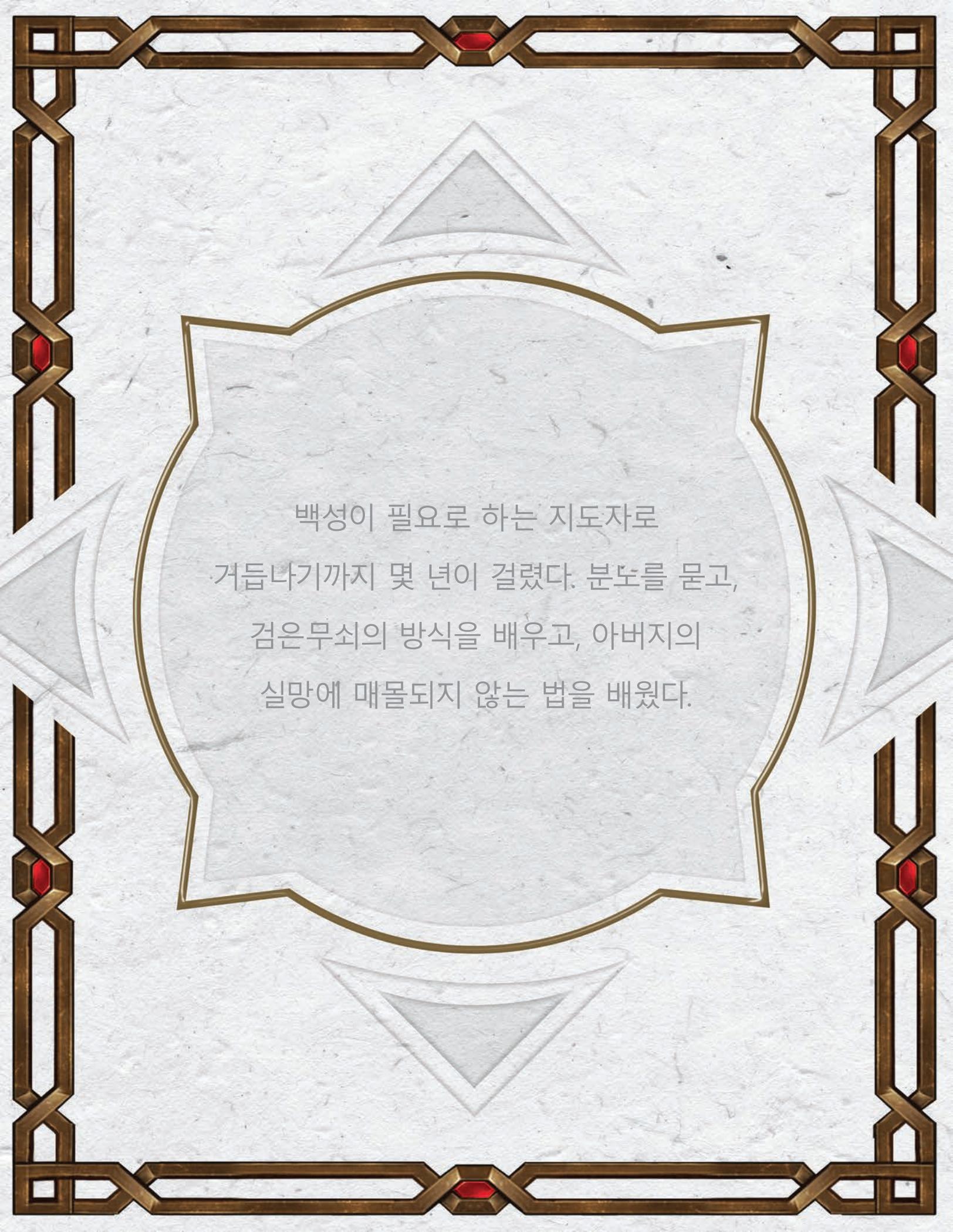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저들은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고함을 내질렀다. 번식기 새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을 과시했고 여러 어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의 죄를 끄집어냈고, 그러다 점심시간이 왔다.

점심도 결코 단순한 점심이 아니다. 국정은 식탁에서도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는다. 이 무리는 오기 전에 족히 한 달은 금식했을 것이다. 그 활력과 식성으로 어둠괴철로의 국고에 가능한 한 큰 타격을 줄 속셈이리라. 결국 다 하나의 아름다운 무언극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싸울 생각만 들어찬 덩치 큰 무뢰배처럼 보여도 다 가식이란 얘기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저 방패는 결국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디 박물관이나 수도원에 걸릴 것이다. 정작 시간 내서 보러 오는 사람은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다. 그러니 *지긋지긋하단 거다.*

무엇보다 연극은 내가 저들보다 훨씬 잘한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나? 저 걸어 다니는 먹보 중 그 누구도 제 손으로 빵을 구워본 적도, 자기가 흘린 식탁을 닦아본 적도 없다. 그룬틴 윈드웍 저 그리핀 뒤에 붙은 벼룩 같은 자가 뒤룩뒤룩 살찐 손으로 곡물을 만져본 적이냐 있긴 할까? 아이언포지의 위대한 박쥐 투른 베릴베인이 화덕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아침 빵을 망친 적이 있거나 할까? 요리사한테 맞아본 적이냐 있을까?

한 번도 없겠지. 저치들은 큰일을 하려고 태어났으니까. 안 그런가? 저들은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요구하는 데는 정말 능숙하다. 반면에 난 일 처리를 조용하게 한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좀 더 쉽게 상대를 대의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을 놓은 호화로운 침실로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도, 입맛에 안 맞는 시큼한 맥주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에게 공평히 짜증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끈적이는 마구간 문 때문에 뛰쳐나간 산양이 암컷과



백성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분노를 묻고,  
검은무쇠의 방식을 배우고, 아버지의  
실망에 매몰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짜짓기를 하는 걸 보고 동맹의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정성을 들인 선물로 채무 의식을 갖게 해 본인도 모르게 조건에 동의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들은 구태여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저 콧대 높은 양반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순간부터 국정 무도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이미 몇 주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도 못하며, 무도회장을 소유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냐고? 당연한 소리를. 나도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견뎠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세상. 어머니의 발상. 어머니의 기술과 교묘한 간계. 하지만 그 시절의 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몸도, 영혼도, 정신도, 왕좌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봐주길 원했다. 당신이 직접 말이다. 죽어가는 어머니의 봐달라는 말로 움직일 게 아니라. 내가 딸은 모양의 빵을 굽고, 얇디 얇아 금속으로 실을 만들고, 카즈 모단에 사는 모든 정치 유력자의 유년기를 꿰고 고통스러운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들 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마그니 브론즈비어드는 결코 딸에게서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많던가. 사사건건 피를 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다른 해결 방식은 아버지의 후계자다운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탁자에 그 많은 맥주를 흘렸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던 말인가? 백성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분노를 묻고, 검은무쇠의 방식을 배우고, 아버지의 실망에 매몰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난 남편의 이상을 실현시켰다. 검은무쇠를 라그나로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킨 것도 나고, 다른 가문과 동맹을 맺어 더 큰 동맹을 구축한 것도 나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날 봐주었다.

난 내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절대 그런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귀족들이 식탁에서 떠드는 것과 달리, 내 아들은 멧돼지와 곰 고기를 직접 굽고, 옷감을 직접 짜고, 튜닉을 직접 바느질하고, 피가 날 때까지 담금그릇 전당을 반들거리게 닦았다. 문제는 아들이 정쟁을 소화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정쟁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사실이었다. 녀석은 책과 함께 숨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 다그란은 드워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충실할 뿐. 바윗덩이 사이에 핀 꽃은 바위처럼 보이지 않으면 짓뭇개질 뿐이다.

고위 청지기 앵그리드 콜드피스트는 홀로 대표진의 식사를 준비했다. 가문 대표들은 앵그리드가 들어오는데도 무시했다. 저들에게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그냥 노쇠한 할머니일 뿐이다. 맥주잔을 겨우 올려놓을 수 있는 망가진 가구로나 보일 것이다. 판석에 앉은 그녀의 허리는 노쇠하여 구부정하게 굽어진 상태였고, 눈은 흐리멍덩했다. 와일드해머 그리핀 인장이 찍힌 커다란 황금 접시를 쥔 앵그리드의 손은 관절염 때문에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릇에는 설탕을 뿌린 곰보버섯과 향신료를 친 순대, 끓인 가시곰 버터 소스를 끼얹은 쿨 티라스산 피 소시지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릇은 어렸을 때부터 욕심만 많은 케이크 먹보였다. 단 한 번도 가시곰 버터 소스를 옷에 흘린 그를 나무라는 어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그릇의 징징거림이 반가울 따름이었다.

그릇과 폴스타트 와일드해머의 식사를 낸 후, 불쌍한 앵그리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아이언포지의 인장이 찍힌 청동 접시를 짚 밀었다. 거대한 접시에는 얼음지느러미 저민 살과 꿀을 바른 이끼, 겨울 무화과로 속을 채워 부드러운 멧돼지가 짝차 있었다. 투른 베릴베인은 입맛을 다셨다. 투른 베릴베인이 앓아누울 때마다 간호사들이 꿀을 바른 이끼 요리를 만들어 입에 물렸다고 한다.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겠지. 나른해져서 한층 누그러질 거고. 하지만 투른은 혼자 오지 않았다. 그 어떤 가문도 언쟁의 자리에 한 명만을 보내진 않는다. 브론즈비어드 가문 대표인 내 삼촌 무라딘은 제철은 아니지만 잘 보존된 던 모로산 곤들매기를 양껏 집어 들었다.

그리고 내 음식 차례가 왔다. 씹쓸한 채소와 껍질에 담은 가재 심장, 말린 과일을 군데군데 넣고 붉은 양념을 뿌린 땅은 빵, 양파, 단단한 치즈 조각, 베이컨 조각이 내 머리만큼 크게, 그보다 두 배는 보기 좋게 담겨 나왔다.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이유는,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나는 돌발성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반기는 요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앵그리드였다. 앵그리드는 무척이나 나이가 많았다. 젊은 시절의 황제와 내가 사랑에 빠져 이곳의 모든 방을 아이로 채우거나, 최소한 지칠 때까지 노력해 보기로 결심하고 왔을 때, 앵그리드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장소의 첫 주춧돌을 망치로 내려칠 때도 앵그리드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만났을 때 앵그리드는 부엌 총괄이었다. 중소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의 독신녀였다. 지금 그녀는 담금그릇 전당의 삭막한 구석에 자리 잡은 유일무이한 보석이다. 이곳에서 앵그리드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 중 앵그리드를 아는 이는 없다시피 하다. 내가 미망인이 되고, 앵그리드가 첩보단장이 된 이후로 고안한 수법이였다.

내 돌그릇의 가재에 뜨거운 식초를 붓는 앵그리드의 손길은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였다. 그녀의 손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시키지 않는 한은. 나는 앵그리드가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청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과했다. 물론, 실제로는 멀쩡하다. 위대한 가문 지도자들은 신경도 안 쓴다. 저들은 앵그리드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저들에게 앵그리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젊은 신부였을 때는 이곳을 자주 방문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둘만의 수화를 고안했다. 정작 내겐 늙은 신부가 될 기회도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소리 없는 대화는 빠르고 은밀했다. 왜 그렇게 인장 반지를 만지작거리는지, 왜 포크 갈래를 만지는지, 왜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엄지로 손마디를 톡톡 두드리는지 물어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어디에 있나?’ 내가 수화로 물었다.

‘도련님이 가실 곳이 달리 있겠습니까? 도서관에 계십니다.’

‘아직도? 뭐 하는 거야?’ 한쪽 눈썹을 치켜올린 뒤, 북쪽 방향으로 턱짓을 하며 물었다.

‘생산적인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 책을 읽다 후계자를 만든 분은 없으니 말이지요.’ 앵그리드가 접시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부드럽게 훑었다. 곧이어 그녀는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새하얀 양념을 뿌린 부들부들한 양고기를 끌어당겼다.

아들을 불러라. 그 녀석도 참석해야 해.

도련님은 오지 않을 겁니다, 여왕님. 아시잖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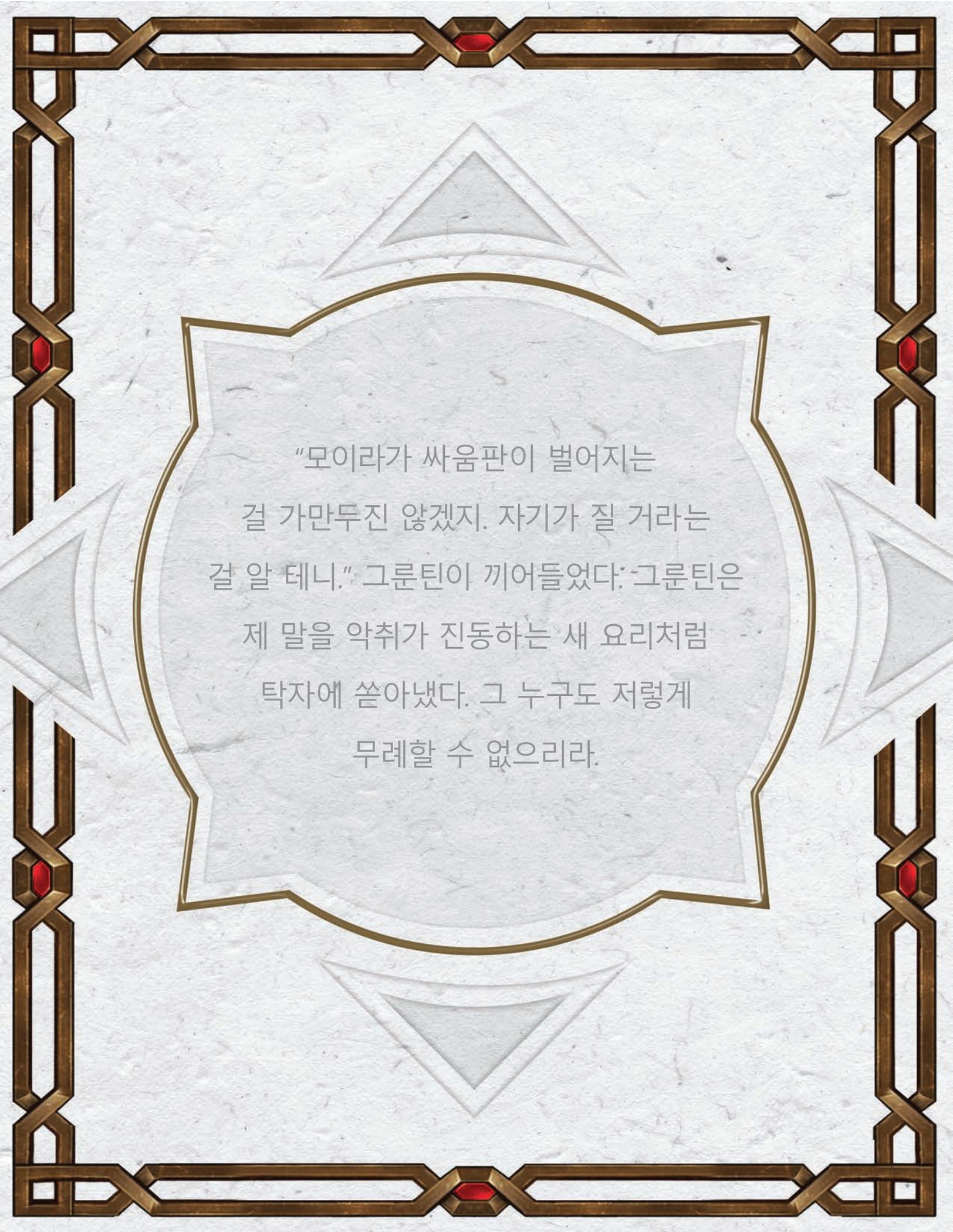
아비랑 어미를 닮아서 고집이 세긴 하지.

그건 여왕님도 비슷하지요.

나는 심장 꺾데기를 바닥에 던지고 한숨을 내쉬었다. “형제들, 나는 털최로 그 방패를 네 조각으로 부수기로 결의할 준비가 되었소. 각자 하나씩 집에 가져갑시다. 마지막 하나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요. 그리고 따스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이언포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 형제로 칭하지 말아야 하오.” 투른 베릴베인이 으르렁거렸다. “방패는 우리의 것이오. 브론즈비어드의 자손인 그대가 어찌 부인할 수 있소? 그대의 아들은 브론즈비어드와 검은무쇠의 두 혈통을 모두 이었는데, 정작 그대는 검은무쇠 편만 들 거요?”

“말을 아주 참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내 충심은 늘 그렇듯 백성이 우선이오.”



“모이자가 싸움판이 벌어지는  
걸 가만두진 않겠지. 자기가 질 거라는  
걸 알 테니.” 그룬틴이 끼어들었다. 그룬틴은  
제 말을 악취가 진동하는 새 요리처럼  
탁자에 쏟아냈다. 그 누구도 저렇게  
무례할 수 없으리라.

버터로 입에 기름칠을 한 그룬틴이 콧방귀를 끼었다. “그냥 싸우게 두시오, 모이라. 어차피 예정된 결과 아니겠소. 왜 그렇게 미루려고 드는지 모르겠군. 어차피 이 모든 논쟁은 내가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내 논지를 전달하면 다 끝날 텐데.” 윈드웍이 묘사라도 하듯이 솔뚜껑만 한 두 손을 순서대로 들어 올렸다. “주먹다짐이 빠진 논쟁은 마침표가 빠진 문장과 같지. 그런대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뭐 하러 다 같이 번거로워지는 일을 만든단 말이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더 편하지.”

폴스타트가 끼어들려는 듯했지만 투른이 말을 끊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하오.” 브론즈비어드가 또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어눌하게 말했다. “이 회의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끼리가 됐든, 제삼자가 됐든 이야기만 나눈 지 너무 오래됐소. 그냥 한바탕 붙읍시다.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몇 병만 더 내주시오오오오. 이것 좀 더 달래도. 더 없는 거요?”

삼촌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삼촌의 수염은 내가 산 음식으로 젖어 있었다. 그가 무슨 의미 있는 말을 하려는 듯 목청을 가다듬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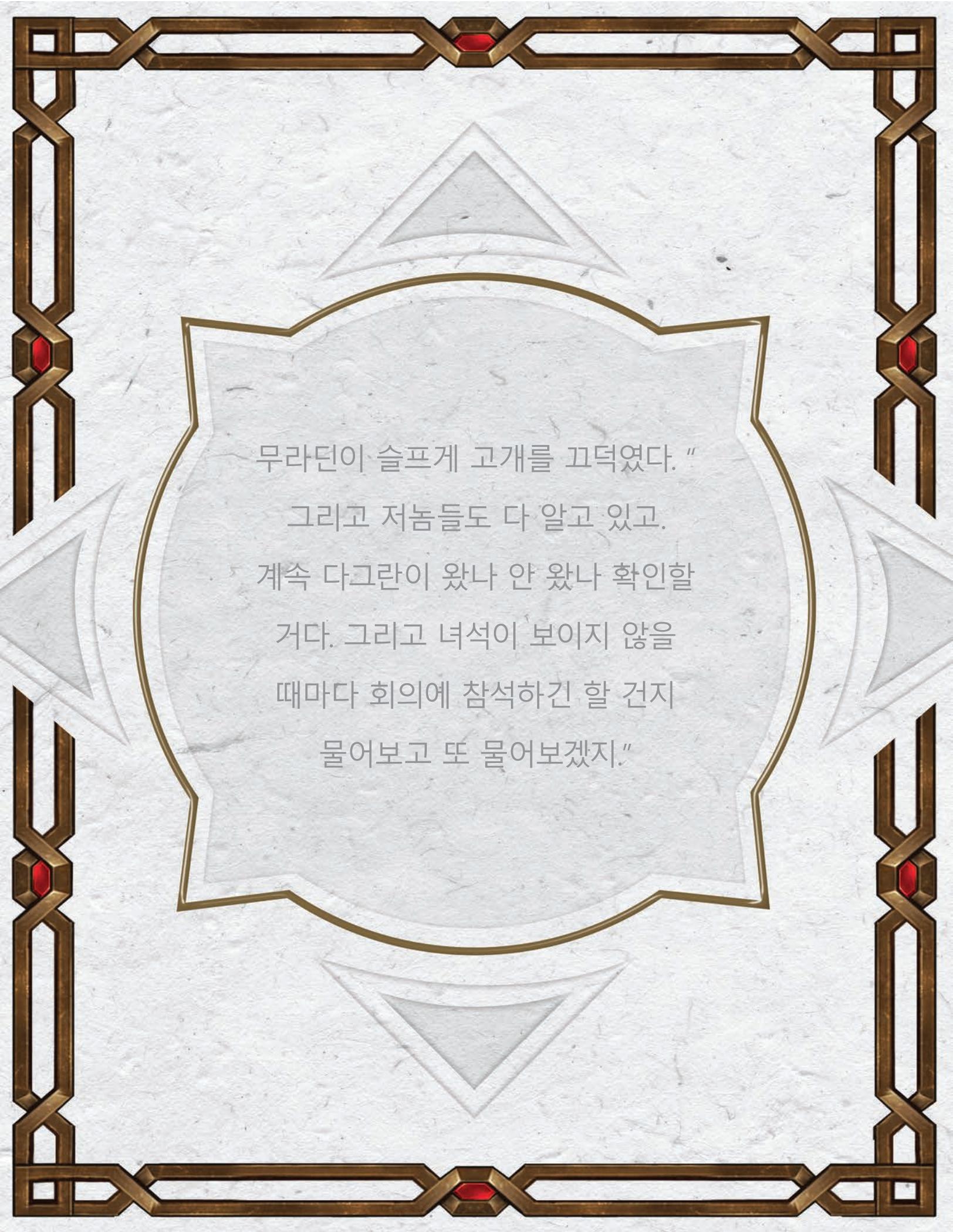
“모이라가 싸움판이 벌어지는 걸 가만두진 않겠지. 자기가 질 거라는 걸 알 테니.” 그룬틴이 끼어들었다. 그룬틴은 제 말을 악취가 진동하는 새 요리처럼 탁자에 쏟아냈다. 그 누구도 저렇게 무례할 수 없으리라.

그룬틴은 웃음과 미소 섞인 반응을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한숨으로 응수했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신중하게 배치한 음식과 꽃. 암호. 속삭임. 이것들 모두 통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드워프가 상대일 때는 언제나 ‘마침표’도 찍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그릇에 놓인 철갑 꼬집이의 집게발을 낚아챈 뒤, 손잡이를 붙잡아 탁자 아래 와일드해머 멍청이의 무릎에 냅다 꽂아버렸다. 놈이 고통 어린 비명을 내질렀다.

“칭얼대지 마라, 그룬틴.” 삼촌이 말했다. “네가 자초한 거야. 이 자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아닌가?”

나는 그룬틴의 관절에 꽂은 집게발을 비틀었다. 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모든 대표진의 시선이, 하물며 방패에 새겨진 생명체들의 시선이 나를 뚫어질 듯 바라보는 것 같았다. 편을 고르기 전에 방향성을 알고 싶은 거겠지. 겁쟁이들.



무라딘이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  
그리고 저놈들도 다 알고 있고.  
계속 다그란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할  
거다. 그리고 녀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긴 할 건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겠지.”

“바람맞은 애송아.” 내가 날 선 목소리로 말했다. “네놈이 우리 땅을 위협하는 트롤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며 성채에 틀어박혀 있을 때, 내가 서리갈기 부족에게 패배한 적이 있더냐?”

그룬틴은 입으로 애걸복절하지 않았다. 놈의 눈빛이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가서 씻어라, 애야.” 무라딘이 말했다. 그러자 세상 빠른 속도로 회의실이 비워졌다. 삼촌만이 탁상 건너편에 거만하게 앉아 씩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와줘서 고맙소, 삼촌.” 건조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조금이나마 조카 숨통을 틱워주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 무라딘이 풍성한 머리를 주억거렸다. “아무쪼록 네 말대로 저 덩어리들을 음식과 유흥으로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지만 이 부담을 적절히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저놈들은 일부러 네 심기를 긁고 있어. 이번 일을 빌미로 *다그란*을 시험하려는 거겠지. 다그란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후계자가 될지 떠보는 거야. 녀석이 보여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도 않겠지.” 무라딘이 제 단검으로 게를 푹 찔렀다. 화려한 문장이나 보석 같은 건 박하지 않은, 수수하고 날카로운 삼각형 형태의 금속 덩어리였다.

“전부 아들을 위해서요.” 얼굴이 빨갱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두 왕좌의 후계자로서 다그란은 이 의회를 주재할 권한이 있소. 그런데 말이오, 삼촌..... 삼촌. 권세 가문에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력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면, 다그란은 절대 해내지 못할 거란 걸 알잖소. 나는 다른 길을 개척하려는 거요. *아들을 위해서*. 그 녀석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소.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늬조차* 하지 않고 있지.”

무라딘이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놈들도 다 알고 있고. 계속 다그란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할 거다. 그리고 녀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긴 할 건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겠지.” 늙은 드워프가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네 아버지가..... 네게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 했지. 널 돌봐주기로 에이미어와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어.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건 말이다, 네가 떠난 이후에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쥐지 못하게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리고..... 다그란이 자기는 갑옷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갑옷을 두를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는 생각 안 한다.”

무라딘은 넓은 손으로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서는 허리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늙은 브론즈비어드 전사는 바닥에 널브러진 피투성이 포크를 흘끗 쳐다보았다. “아침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자고 할 거야. 다그란을 데려와. 그 녀석도 나이가 찼어. 이미 시기를 넘겼지, 사실. 모이라, 다그란은 착한 녀석이야. 근데 드워프가 되려는 시도조차 허락하지 않으면 드워프를 지배할 수 없어.”



담금그릇 전당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다. 저택, 안뜰, 마구간, 무기고, 심지어 성벽과 강까지 모두 지하 깊은 곳에 넓게 펼쳐져 솟구치거나 하강한다. 주랑과 복도, 기둥을 세운 열주는 저 아래 뜨거운 용암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붉은 빛을 머금고 모든 벽과 홍예길을 비추고, 깊은 그림자는 등불의 주황색 불빛에 일그러지곤 한다. 외부인은 백이면 백 음울하고 억압적인 곳으로 여기지만, 내 백성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놓이는 곳.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다. 아내의 어깨망토를 위해 밤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을 만큼 젊은 남편이 울퉁불퉁한 바위 천장을 지상까지 뚫게 한 장소가 있었다. 남편은 치밀한 설계로 두껍고 투명한 수정을 놓아 오직 햇빛만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바로 그 한 줄기 일렁이는 햇살이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초상화의 전당이다. 햇살은 어느 한 그림에 닿는데,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그림이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검은무쇠의 선조도 아니고, 그곳에 오를 영예를 얻은 영웅도 아니었으니까. 그 그림은 바로 아버지의 그림이었다. 상냥하게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어떤 물감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내밀하고 노골적인 애정을 담아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회의 금고에서 대도서관으로 가려면 이 초상화의 전당을 반드시 지나야 했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그 초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나는 고향이 참 그리웠다. 남편의 사랑에 감동한 부모님은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도, 그 이유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그니 브론즈비어드. 나를 나대로 살지도, 나를 이용하지도 못하게 한 아버지. 아버지는 얼음 트롤에게 찢겨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의 내장을 눈에 담은 채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맹세했다. 허울만 좋은 말이었다. 정작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라고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최대한 세계 치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으니까.

정작 내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말이다. 다만 치는 부분을 가장 좋아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이래로 베일을 쓴 간호사부터 저 아래 안뜰의 병사들까지 모두 아버지를 유능하고 맹렬하며 강인한 인재라고 여겼다. 아버지가 받은 교육은 그 타고난 강함을 신중함과 넓은 아량, 공명정대함, 이따금 베푸는 자비 정신으로 단련하는 것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내가 열등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약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고, 진중하지 못하며, 왜소해 무시하기 쉬웠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아이를 왕위에 올리려면 그 부드러운 리넨을 무엇보다 견고한 전투용 튜닉으로 가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야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생길 테니까. 나는 제왕학도, 정의의 미덕에 대한 외국 마법사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약자나 무고한 자를 살리기 위해 힘을 빼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했다. 제 힘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왕자도 공포의 대상인 건 여전했다. 오히려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정을 갖추었던 소리를 들었다. 공주는 그저 공주일 뿐. 젓 먹던 힘까지 다해 휘두르지 않으면 다시는 휘두를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소 부당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 마그니였다. 내 세계를 만든 건 마그니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딸과 아들도 있다. 내 눈에 아버지가 너무 크게만 보여서, 그래서 내 고통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만들어 준 육체에서 오는 것일 뿐이란 걸 깨닫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 또, 세상 모든 시선이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나를 힐난하진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그란을 더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거울처럼 비친 고통의 간극에서 말이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나와 달리 다그란을 보호하려고 들다, 오히려 날 지키고 아들을 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키다 만 약속이란 얼어붙은 감옥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왔을 때도, 나를 미래로 생각하며, 사랑하다 못해 오직 나만을 위해 요새에 햇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한 황제가 직접 세운 던전의 심연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힘껏 무기를 휘두를 때도, 내가 직접 여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수많은 희생자를 집어삼킨 전쟁과 다를 바 없이 치열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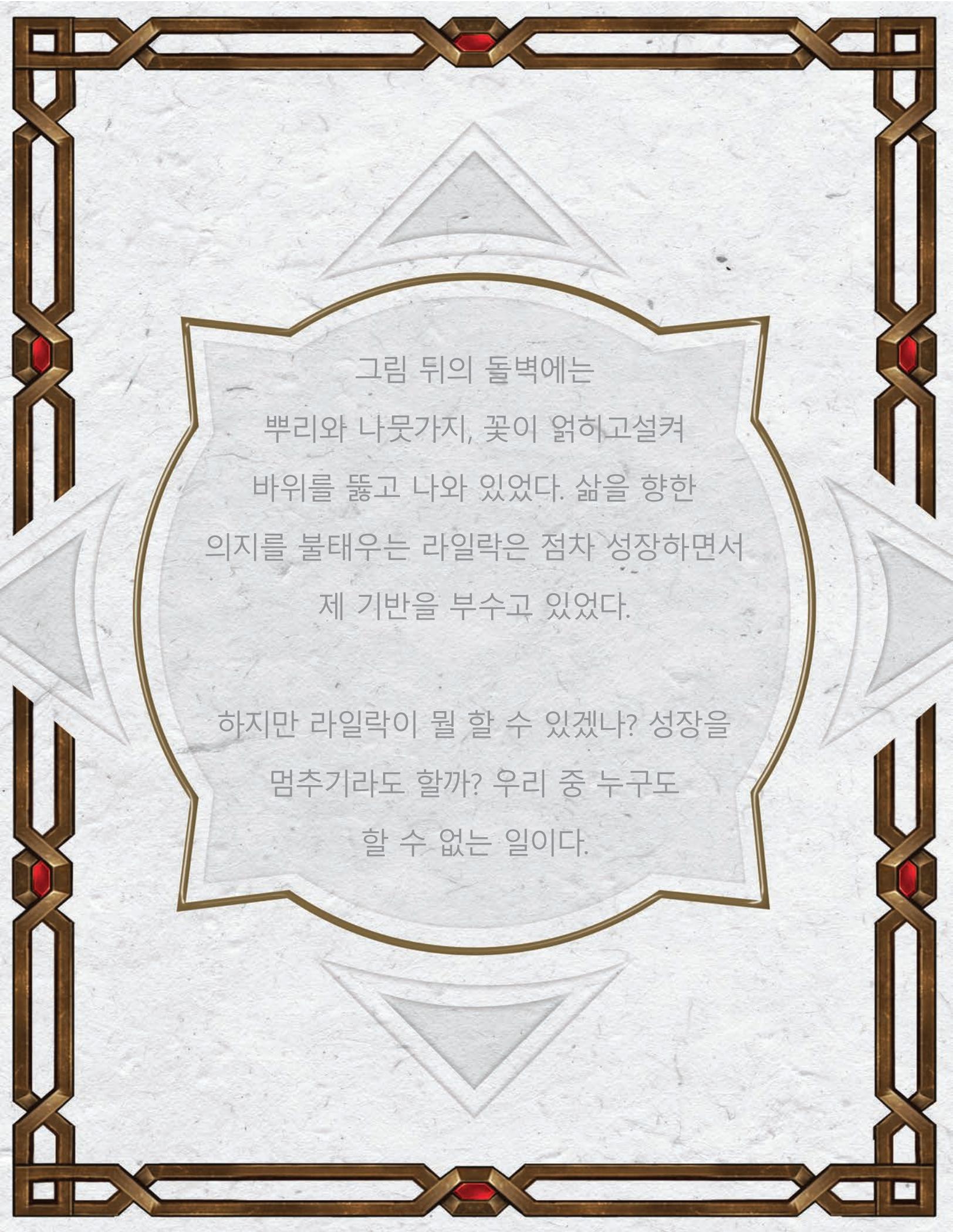


그림 뒤의 돌벽에는  
뿌리와 나뭇가지, 꽃이 얽히고설켜  
바위를 뚫고 나와 있었다. 삶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라일락은 점차 성장하면서  
제 기반을 부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일락이 뭘 할 수 있겠나? 성장을  
멈추기라도 할까?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도, 그림 속의 사내는 빼앗아 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내 천부권을 갖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다른 천부권을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작은 남자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고는 말했다.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드십시오. 사나이로, 전사로 만들어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을 보지 못했던 모든 이를 벌벌 떨게 만드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했었나? 이 기묘한 다그란의 반영에 내가 무슨 보탬이 됐을까? 이 아이도 다그란이지만, 다른 다그란이다. 이 다그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 나와 달리 조용하고 사냥하며 다정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남자도 원한 모습은 아니었다.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태어나 폭력을 휘둘러야 하는 이의 코에 입을 맞추어 줄 그런 아이였다. 내 가슴에서 지혜만을 가져간 아이였다.

아들아, 아들아. 나 같은 어미를 만나 무엇이 되겠니?

차가운 햇살이 수정을 타고 내려와 초상화 속 어머니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한참 동안 빛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들이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지내는 도서관을 찾아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 누리지 못했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림 뒤의 돌벽에는 뿌리와 나뭇가지, 꽃이 얽히고설켜 바위를 뚫고 나와 있었다. 삶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라일락은 점차 성장하면서 제 기반을 부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일락이 뭘 할 수 있겠나? 성장을 멈추기라도 할까?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웅장한 문과 그림, 등불 너머에는 껍질 속의 씨앗 같은 다그란이 있었다. 앵그리드가 말한 곳,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다그란이 늘 지내는 곳. 담금그릇 전당의 대도서관에서 수천 가지 주제에 대한 장과 구절, 일화로 가득한 장서로 둘러싸인 채, 다그란은 자기 습관대로 아홉 권쯤 되는 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이 책 저 책 옮겨 가며 읽고 있었다. 꽃을 맛보는 나비처럼 말이다. 아름답고 온화하며 영민한 다그란 타우릿산 2세.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가락은 먹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성인이 되고 몇 차례 계절이 지났지만 다그란의 눈빛은 책에서 얻은 흥미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남쪽 벽에는 길쭉한 양피지가 걸려 있었다. 양피지에는 혼란스러운 불가사의를 품은 그 저주받은 방패가 흑백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중 절반은 실물과 똑같이 화려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목탄으로 그은 선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말라붙은 피와 찌그러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놀라운 작품이었다.

“네가 그렸니?” 아들에게 물었다.

“예?” 다그란이 꿈에서 깬 듯 깜짝 놀라 되물었다. 다그란이 손을 더듬어 안경을 찾았다. 이것도 참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내 평생 안경을 가까이하는 드워프를 거의 못 봤다. 그 드워프 중 적잖은 수가 반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안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소년은 하얀 산발 아래 콧등 위로 안경을 올렸다. 땀났던 머리는 풀린 지 오래였다. “아, 저거요. 그럼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없잖아요?”

“잘 그렸구나.”

“그런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딜 봐서? 저것 때문에 다들 고슴도치처럼 무기를 주렁주렁 휘감고 왔는데. 사실 널 찾아온 것도 저것 때문이다.”

“음,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방패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방패는..... 그냥 가죽과 쇠덩이랄까요. 무언가 의미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방패에 새겨진 그림에 방패 그 자체 못지않은 의미가 있죠. 둘 다 맞는 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그란의 얘기는 사실 좀처럼 이해된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식사는 언제 했느냐?”

두 가문의 후계자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기처럼 바지를 걷어 올렸다. 너무나도 가냘팠고, 기운이 넘쳤다. 다그란이 손사래를 쳤다. “배는 언제든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글귀 말이에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글귀.” 다그란은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내 팔을 쪽 뺀 것처럼 멀리 있는 책까지 오락가락했다. “전 아제로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를 섭렵했어요. 너무 오래전에 사어가 된 것들은 기초만 이해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일단 알면 나머지는 알아서 답이 나와요. 실마리를 찾은 수수께끼처럼. 단어와 상징을 조합하는 방법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비문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하겠어요. 룬이 접한 그 어떤 언어와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탐을 단서로 삼아 추적했죠. 그저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딘가에 실존했던 요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방패를 만든 장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양식을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대한 문장학 사전에서 찾는 거죠. 어머니도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아이들은 항상 자기만이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통치를 펼치라는  
겁니까? 할아버지처럼 되라고요?”  
다그란이 책장을 넘겼다. “이 책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이 할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될까요?”  
다그란이 펼쳐진 책을 가리켰다. “여기엔  
어머니가 잔혹하다고 나와 있어요.  
성급하고, 무자비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 예술에 관심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림과 채색을 독학했죠.”

“그걸 독학했다고?”

소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뭐, 별다른 도움이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갔죠. 술잔이 어딘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다그란은 내 존재를 반쯤 잊은 채 또 다른 두꺼운 책으로 넘어갔다.

“다그란, 할 말이 있다.”

“흠?”

“다그란, 때가 됐어.”

“흠. 때가 됐다라.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어머니가 주역이지 않나요.”

구태여 묻지 않았다. 나에 관한 역사책 서술이 친절할 리 없으니. “다그란. 부탁이다. 이젠 정말 *때가 됐어*. 네가 나설 때야.”

다그란이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은 희게 질려 있었다. “아.” 다그란이 웅얼거렸다. “아.....”

“무라딘은 네가 나와야 협상을 계속할 거야.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르고 버른 자들이다. 드디어 날 몰아내려는 거지.”

“전 어머니가 영원히 자리를 지키면 좋겠어요.” 다그란이 패배감에 찬 목소리로 나긋하게 말했다.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손에 넣는 사람은 없다.” 나는 다그란을 쏘아붙였다. “운명이란 이름의 식탁에서 떨어져 나온 찌꺼기를 주워 먹을 뿐이지. 이젠 네가 결정해야 해.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순 없어.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정하거라. 지금처럼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세 가문 중 하나로 살아가든지, 두 혈통을 물려받은 후계로서 왕위에 올라 타파하든지. 다만, 후자를 택하면 피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다그란은 얼굴을 찡그렸다. 아들은 얼굴에 분노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대부분은 다그란이 화를 낼 줄도 모른다고 여겼지만, 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그란이 얼굴을 구겼다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절규를 내지르는 것과 같다.

“어떤 통치를 펼치라는 겁니까? 할아버지처럼 되라고요?” 다그란이 책장을 넘겼다. “이 책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이 할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될까요?” 다그란이 펼쳐진 책을 가리켰다. “여기엔 어머니가 잔혹하다고 나와 있어요. 성급하고, 무자비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아, 아들이. 책은..... 신의를 모른다. 일단 글로 적어버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사실처럼 굳어지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책을 통해 알 필요가 없다. 책에는 내가 콧대가 높고 양보하는 법이 없으며, 철권통치를 펼쳤다고 서술되어 있겠지. 그럼 묻겠다. 그럼 내가 카즈 모단에서 어떤 통치를 펼쳤어야 하겠느냐? 아니, 질문을 바꾸지. 나처럼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잘했다고 칭송받은 이가 있더냐?”

다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못 한 거겠지. 답이 없는 질문이었으니까. 우리 둘 사이엔 잠시 적막이 흘렀다.

“아무튼 당시의 난 젊었다. 젊음은 크든, 작든 어리석음을 수반하지.”

“저도 젊어요.” 다그란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에 관해서는.....” 내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난 네 할아버지가 싫었다. 몇 년 동안 오직 그 생각만 했지. 그런데.....”

아,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싶냐고? 하기 싫지.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법이다. 뭐든지. 설령 그게 진실을 말해주는 일이라도.

“네 할아버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당신의 관점에서 말이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다그란은 안경 낀 시선을 내 쪽으로 돌렸다.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타올랐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내겐 그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들이, 여긴 무언가를 심기에 그리 좋은 토양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봄이고, 뭘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해. 배움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할 때가 왔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유감이야. 내가 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진작에 그랬을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반쯤 완성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폈다. “이 전당을 나설 때 고개를 들어 위를 보렴. 문 바로 위쪽을. 마지막 수업이다. 돌을 비집고 나와 자라는 꽃이 있어. 그런 다음 해가 뜨고 두 시간 뒤, 회의장으로 와서 의회를 주재하거라.”

아들이 어깨를 곧게 폈다. 아직 어렸을 때 웃음과 꿈을 머금고 이 복도를 뛰놀던 그 시절처럼. 저 당당한 기세를 나는 안다. 다그란은 내게 말대꾸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배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앵그리드에게 고위 인사들이 회의 시작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차려놓을 것을 지시했다. 배가 부르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 좀 부드러워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앵그리드가 너무 빨리 돌아왔다.

‘여왕님’ 앵그리드의 손가락이 투명스럽게 움직였다.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 되어 있더군요.’

‘말도 안 돼.’ 나는 대답하는 와중에도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장화에 발을 욱여넣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었다.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신음이 흐르는 탁자가 보였다. 귀족들은 허리띠를 풀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룬트 윈드웍의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높은 분개한 눈빛으로 날 노려보았다. 각 가문의 대표에게 어울리는 요리. 이성을 잃지 않을 만큼 절묘하게 채워 놓은 맥주잔, 심지어 각 드워프 가문과 혈통의 인장이 새겨진 식기류까지. 그야말로 완벽의 표상과도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그란 타우릿산 2세는 수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미뤄온 자리에. 그런데도 다그란은 어떤 하인에게도 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식사 자리를 준비했다.

다그란이 순간적으로 허리띠에 손가락을 비추었다.

‘어머니.’ 다그란의 손가락이 말했다. ‘다 잘될 거예요.’

앵그리드와 내가 오래전에 고안한 수화였다. 다그란에게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가르친 적이 없었다. 다그란은 그저 평생 지켜봐 온 아이였다.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아이가 입을 열었다. 말을 끝마칠 무렵에 이르자 그 자리에 있는 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다들 참 어리석습니다.” 포만감으로 이룬 평화는 모인 사람들의 노호성 속에 사라졌다. 여섯 개의 손이 여섯 개의 무기 자루로 향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다그란이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포효하지도

않았으며, 폭력으로 잠재우려 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좌중은 다그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그 세 방법을 전부 써도 안 듣던 작자들이. 개자식들.

“여러분은 참 어리석습니다. 지긋지긋할 지경이에요. 서로를 때리는 것보다 책이 덜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감정이 상하—”

“감정?” 실밥이 터지면서 붕대에 피가 흐르자 그룬틴이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명여*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될까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터라.”

“말조심해라, 꼬마야.” 삼촌이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진땀을 뺐으니까요.” 다그란이 거대한 고대 방패의 각인을 가리켰다. “아제로스에 사는 여러 종족의 언어 중 그 어떤 문자도 이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방패에 세밀하게 새겼을까요?”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다그란은 참을성 있게 웃었다. “방패. 방패는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이죠?”

사실, 내 인생의 절반 가까이 내게 침을 뱉던 작자들이 수업을 빼먹은 학생처럼 의자에서 몸을 비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법 즐거웠다.

“음.....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브론즈비어드 보좌관이 용기를 발휘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방패는 어떻게 되죠?” 다그란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했다.

“심히 엉망이 되지.” 무라딘이 대답했다. 그는 슬슬 알아차리기 시작한 눈치였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뭐 하러 이리 번거롭게 꾸며냈을까요? 도대체 왜 몇 주가 넘는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 넣고, 보존 처리를 하고, 보석을 박아 넣고, 테두리와 가운데 십자가에 룬을 세기고, 세 가지 금속으로 땅아 여인의 팔찌처럼 세공을 해 넣었을까요? 누군가의 철퇴를 막아내 예쁜 보석을 사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전 방패가 어떤 물건인지 잘 압니다. 가족을 늘리고, 쇠를 두드려 만들죠. 우린 실용적인 종족이에요. 광산의 풍요와 위대한 지성으로 빚어낸 솜씨를 방패에 낭비할 종족이 아니지요. 검이었으면 혹시 모르죠. 개선식용 방어구라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왕관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방패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도구예요. 그리고 이걸 도구로서 *아무 쓸모가 없죠.*”

의심 섞인 웅성거림이 감돌았다. 더 많은 파이와 구운 고기가 긴장한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세 가지 금속. 철,  
청동, 검은무쇠, 브론즈비어드,  
와일드해머. 뼈를 부수거나 금고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망치를 휘둘렀죠. 이 의회 이전, 모디무스  
이전, 브론즈비어드와 와일드해머, 검은무쇠의  
시대 이전, 고대의 어느 시점. 그 무렵의  
우리 종족은 하나였던 거예요. 모든 가문이  
하나였던 거죠. 제작자의 손을 가진  
아들을 슬하에 둔, 여왕을 필두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석이 전부 온전합니다. 이 방패가 한 번이라도 전투를 치렀다면 텅 빈 홈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피가 묻어 있잖소. 전투의 흔적도 남아있고.” 투른 베릴베인이 항변했다.

“그런가요?” 다그란은 그런 생각은 못 했다는 듯이 신중하게 물었다. “정말 피일까요? 물감은 아니고요? 더 이상한 물질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금속 곳곳에 난 작은 흠집은—” 다그란은 그룬틴에게 폭풍망치를, 투른에게는 전쟁검을, 내겐 단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각 무기를 방패의 손상된 부분에 갖다 댔다. 그 어떤 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더니 황제가 될 아이가 제 허리띠에서 작고 섬세한 망치와 집게 한 쌍을 꺼내 흠집에 대었다.

“탐험가 연맹이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마는.” 다그란이 멋쩍게 웃었다. “이건 발굴 도구의 흔적입니다. 피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전 도서관에서 몇 주 동안 이 인장과 징표, 각 사분면의 만듬새, 룬 그 자체 등 모든 요소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에 이르렀죠.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다는 사실을.”

‘너무 바보 취급하지 말거라.’ 나는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여 경고를 보냈다. *이대로 가면 자랑을 다 하지도 못할 거야.*

“이 방패는 애초에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념용이죠. 사과의 의미가 있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다시 보세요, 와일드해머 여러분. 그리핀이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비극적이게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다고 한들 홀로 양고기를 포식할 수 없는 신세죠. 검은무쇠는 어떤가요. 다시 보죠. 구원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요새가 아닌가요. 보세요, 브론즈비어드 여러분. 아이언포지의 대전당에서 술잔을 들어 올리고는 있는데, 포도주가 아닌 피로 가득 차 있으며, 함께 만찬을 즐길 동지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그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보세요, 어머니. 왕관이 상위 사분면만의 것은 아니에요. 여왕의 왕관이죠. 그리고 하나의 망치가 왕관을 뚫고 지나가고 있고요. 전쟁용 망치가 아니라 그냥 망치예요. 파괴가 아닌, 제작을 위한 망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도시를 세우기 위한 망치. 이 방패는 전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종족이 서로 상잔을 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세심한 정성을 들여 만든 겁니다. 과거 우린 하나였습니다. 세 가지 금속. 철, 청동, 금. 검은무쇠, 브론즈비어드, 와일드해머. 뼈를 부수거나 금고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망치를 휘둘렀죠. 이 의회 이전, 모디무스 이전, 브론즈비어드와 와일드해머, 검은무쇠의 시대 이전, 고대의 어느 시점. 그 무렵의 우리 종족은 하나였던 거예요. 모든 가문이 하나였던 거죠. 제작자의 손을 가진 아들을 슬하에 둔, 여왕을 필두로 말입니다.”

투른이 눈을 굴렸다. “그대가 그걸 어떻게 다 아는 거요?”

“그야 전 이 룬을 읽을 줄 아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였죠. 이 룬이 하나의 언어이고, 한 가문의 말이고, 한 가문의 발상이며, 한 가문의 방식일 거라고 착각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거였어요. 각각의 룬은 키메라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물의 일부를 가져와 만든 야수인 셈이죠. 세 야수 말이에요. 이건 고대 와일드해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긴 사선 기호입니다.” 다그란이 날쌔고 영민한 손놀림으로 허공에 글자의 구조를 찍어내듯이 그려냈다. “저건 잊힌 검은무쇠 룬의 거칠고 둔탁한 방점입니다. 그리고 사어가 된 브론즈비어드 속기체의 곡선으로 서로를 잇고 있죠. 각 글자가 이런 양식을 따릅니다. 사실 이 정도로만 섞었으면 제가 훨씬 더 빨리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각 글자가 세 가지 문자로 만들어진 건 물론이고, 각각의 단어가 무척이나 오래된 고대 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문장은 문법을 기워 맞춘 수준이에요. 검은무쇠식 동사 활용에, 와일드해머식 명사 어형 변화, 브론즈비어드식 전치사와 구문 분류 체계까지.....”

다그란은 홀로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공부와 수수께끼의 즐거움,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의 기쁨과 그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아들이 저들에겐 어떤 의미도 없는 광석으로 가득한 광산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돌아와, 다그란.’ 나는 간절히 생각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길로는 부족해.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늘 해온 대로 아이를 올바른 노선으로 돌려놓기 위해 입을 열었다. 아이가 무심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 돌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었다. 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는 지금,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시절 나는 가만히 있었다가 상처를 입었고, 어떤 전투로 입은 부상보다 더 쓰라렸다. 그만한 고통은 또 없으리라.

아이가 말을 멈췄다. 다그란이 눈을 감고는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다시 운을 띄웠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면 이건 그냥 룬이 아니에요. 주문이죠. 복원의 주문.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다면 알아서 발현될 겁니다.”

다그란 타우릿산 2세는 십자가에 새겨진 문구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도다.” 그리고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손가락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마르다 못해 검게 갈라진 피가 일렁이더니 물감이 되어 흘러내렸고, 순식간에 방패는 축축하고 뜨거운 드워프의 피로 물들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그란이 나도 몰랐던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방패가 힘에 눌러 금이 갈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내리쳤다. “아니면 형제가 되시겠습니까? 후자라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전자라면 여러분의 놀음에 어울려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 앞을 가로막든, 그렇지 않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피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의 피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피입니다. 실제로 살아갔으며, 죽어서 기억으로 남았고, 여러분의 잔에 들어간 문양과 인장으로, 그릇으로 승화한 분들입니다. 선조들께서는 시대를 초월해 이어질 잠언을 남기기 위해 막대한 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손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조들의 명예를 무시하고 싶으면 이 전당에서 나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 남을 것이고 노력할 것이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짜 망치를 들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 말이에요.”

다그란은 부서진 방패 위에 발굴 도구를 던져놓고는 회의실을 나섰다.

‘따라오세요. 뒤돌아보시지 말고요.’ 다그란이 손가락으로 재촉했다.

그 순간,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데려온 아이가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순 없었다.



“다들 남을 거예요.” 다그란이 문 너머에서 말했다. “계획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긴 했지만요.”



“설마 그렇게 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참으로 젊은 아들의 얼굴을. “룬은 어떻게 푼 거냐? 어제는 막막해하더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다그란 타우릿산 2세가 내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긴 눈과 귀로 가득 차 있는데, 그중 일부만 앵그리드의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모든 게 너무 완벽했는데. 용케 해법을 찾았어.”

아, 내가 알던 그 소년이 돌아왔다. 자기가 얼마나 짓궂은 장난을 쳤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저 표정. “말씀드렸잖아요. 방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패 그 자체를 말한 거예요. 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럴 수가 없었죠. 만듦새가 너무 좋은, 귀중한 물건이잖아요. 무른 금속에 보석까지 달아놔서 내구성도 약하죠. 고대의 드워프들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그 방패를 만든 거예요. 어머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전달한 거죠. 선조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알고 있었겠죠. 싸움을 끝내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필연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사실도요. 그래서 이 위대한 물건을 만든 다음, 전서응에게 전언을 물려 보내듯 가문의 자손의 자손을 거치면서 전달한 거예요.” 다그란은 후회하듯 마른 웃음을 지었다. “제가 좀..... 흥분하긴 했죠, 근데?”

“간단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를 만들어도 됐을 것 아니냐?” 질문을 던졌다. “말이 안 돼.”

“오히려 말이 되죠! ‘너는 어리석다’라고 새겨진 쇠조각을 찾으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무시하시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누구든 귀중하게 여기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당히 값비싸 보이고, 기묘한 데다, 해독조차 어렵죠. 모든 가문이 모여서 소유권을 두고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갖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선조들이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각이 모였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선조들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말이죠. 어머니와 앵그리드가 꽃과 음악, 음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저 방패와 꽃병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수수께끼의 형태여야 했던 거죠.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수수께끼 말이에요.”

다그란은 혼잣말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아이가 훨씬 더 성장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 그렇죠.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상상이 안 돼요..... 계획을 세우고, 협상을 하고, 실처럼 가는 금을 뽑아내고, 겨울 호수에 맺히는 살얼음처럼 가는 보석을 세공하고. 그 모든 게 한 번의 도박을 위해서라니. 정말이지.....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매를 만들어 자신이 모르는 세상으로 날려 보낸 거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의 저편에 있는 세계로 보낸 거죠. 여자일 수도 있고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내 아들을 안다. 잘 안다. “길 잃은 영혼의 걸작에 네 손길을 더하지 않고는 못 배겼나 보구나.”

다그란은 속눈썹 사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피의 주문에 살짝 손을 보탤지도 모르긴 하죠. 언어는 참 재밌단 말이에요. 큰삼촌과 동료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다그란이 어렸을 때, 나무 드워프와 욱조 트롤과의 전투가 전부였던 시절처럼 아이와 함께 웃고 속삭이며 승리의 순간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비슷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대견함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아이의 공을 내 것으로 덧칠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의 덕을 내 것으로 만들고, 빛을 찾아 도망칠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다.

나도 배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어머니, 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을 거란 것도 알았고요. 저들보다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었죠. 저만의 영역을 찾아야 했어요. 제 능력으론 저들의 영역에서 어머니처럼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젠 관찮을 거예요. 분명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죠. 언제까지고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매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되겠지요.” 다그란은 내 어깨를 잡고 제 이마를 내 이마에 밀착시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널 보면 날 닮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널 보고 있단다. 내 자식. 내 아들. 널 보고 있고말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내가 다그란을 잘못 봤다. 우리 모두 그랬다.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다그란은 언제나 나의 꽃, 나의 라일락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꽃일지도 모르지. 바위 사이에 핀 꽃. 우리 모두 내면은 얽혀있는 것일지도. 우리의 진심을 가리는 갑옷이

다그란은 살아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 강하다. 나보다도 더. 난  
부드러움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리고 다그란이 들어서서는 순간 영원한 주인이 될  
방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가문의 주인도  
감히 떠날 생각을 못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침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며, 역사의 무게로 움직이기  
어려우며,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균열 사이로 흘러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벗겨지면, 세상이 꽃잎을 모조리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고, 들이받고, 발을 구르고, 얼굴을 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일락은 우리보다 더 대지에 가깝고, 뿌리를 내린 석화된 바위와도 가깝다. 하지만 오직 다그란만이 공포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곧 흙이자 바위이고 이를 다스리는 주체가 되겠노라고 선언했다.

다그란은 살아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 강하다. 나보다도 더. 난 부드러움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리고 다그란이 들어서면 순간 영원한 주인이 될 방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가문의 주인도 감히 떠날 생각을 못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침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며, 역사의 무게로 움직이기 어려우며,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균열 사이로 흘러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 작가 소개

캐서린 M. 발렌테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Space Opera*, *Palimpsest*, *Deathless*, *Radiance*, *Mass Effect: Annihilation*, 클라우드펀딩 히트작 *The Girl Who Circumnavigated Fairyland in a Ship of Her Own Making* 등을 포함해 40권이 넘는 소설과 시를 집필했다. 또한 네블러상, 휴고상,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상, 스테전상, 미소포에닉상, 람다상, 로커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메인주 해안 인근의 섬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